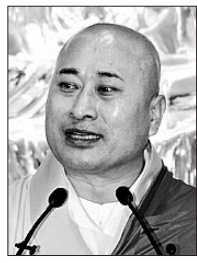


(사)맑고향기롭게 4대 이사장에 덕일 스님

2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서

맑고 향기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 제4대 이사장에 김상사 주지 덕일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길상사에 더욱 뿌리 내리고,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데 협력 하자"면서 "외형뿐만 아닌 내실을 다지고, 법정 스님의 유자와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사)맑고향기롭게는 2월 26일 서울 길상사 소강당에서 '제31차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다뤘다.

총회에서는 김상사 주지 덕일 스님(사진)을 비롯해 총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신규임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덕일 스님을 법인 4대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덕일 스님은 전 이사장 덕은 스님 등 전임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2000년 합천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5년 순천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강남 봉은사 포교 사회국장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종자연, 총선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

정교분리·종교중립 위반 주장... 새누리 7, 더민주당 3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0대 총선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한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 26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라면서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과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자연이 제시한 7가지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심사기준은 △공직자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 개종을 권유하지 말 것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책이나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행위를 하지 말 것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박익기 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김을동(새누리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박성중(새누리당), 안상수(새누리당),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이윤주(더불어민주당), 이재오(새누리당), 이혜훈(새누리당), 주대준(새누리당), 황우여(새누리당) 총 10명(새누리당 7명·더불어민주당 3명)이다.

조계종 수익사업 전담부서 생긴다

사업부 창설 골자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에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가 신설된다. 조계종은 최근 사업부 창설을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식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유동사업부를 두어 수익사업을 진행해왔다. '감로수' 브랜드 생수사업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억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으며, 달력 판매 또한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 매출이 증대됐다.

이번 사업부 개설은 그동안 80%에 달하는 종단 재정의 분담금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부 개설로 인해 조계종 유류자산 활용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 총무원법 개정안 23조에 따르면 사업부는 사업국을 산하에 두도록 돼있으며, 7조와 11조에도 관련 사항을 담았다. 총무원은 이에 대해 3월 7일 부실장 간담회와 8일 총무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송부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연금 지원 앞두고, 재정확보 수면 위로

[승려복지 시행 5년 점검]

국민연금 혜택에도 가입 저조 '소득편차, 무소득이 주원인' 2017년 4억 여 원 재정 소요 승려복지회 '승보공양' 전개



2011년 12월 조계종 지정요양시설 묘회원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첫 수혜자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하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자승)가 승려복지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국민연금 지원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재정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최근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의 본격적인 승보공양운동 전개는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앞두고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한 요인이다.

승려복지회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 지원을 시작해 첫 해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스님들은 젊은 스님들을 포함해 8300여 명에 달한다. 승

려복지회는 첫 해 2000여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약 4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 부담이 늘어남에도 승려복지회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승려노후복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국민연금은 매달 3만 6000원 씩 10년간 납부해 432만원을 내면 평생 매달 12만원을 받는 제도다. 스님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 15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단 요양병원 및 수행마를 구축 등 종단차원의 복지제도 마련과 별개로 국민이기도 한 스님들이 국가복지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 개별 스님들의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2016년 신년계획안의 승려복지 현황에 따르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는 "불교계 내에서도 소득편차가 심하다. 조계종 스님 중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인 스님들이 43%에 달하고, 65세 이상 스님 중 고령수입없는 스님이 86%에 달한다. 스님들이 연금 가입에 대해 생각이 부족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직 불교계가 완벽하게 스님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사찰에서 불사를 긴축하고 연금재원을 비롯한 승려복지 지원 마련에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연금 납부지원과 기본진료비 지원 외에도 치료비 지원, 스님전용 요양병원, 요양원 건립 등 과제는 많다. 승려복지 5년차를 맞아 승보공양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제도는 2011년 3월 10일 승려복지법 제정 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1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2015년에만 81명이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지원 폭이 늘고 있다. (02)2011-172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 법륜사 주지직 두고 또 다시 갈등

"성원 안된 이사회 무효" vs "별빈 문도 이사 자격 없다"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등 종단 내용중인 태고종이 총무원 청사 3층에 위치한 법륜사 주지 선출을 두고 또 다시 갈등에 휩싸여 불자들의 반목을 사고 있다.

대륜문화 회장이자 태고종 대원은 스님은 3월 2일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신임 법륜사 주지로 보경 스님을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현 주지 해일 스님은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이사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원은 스님은 "1월 19일 총 14명 중 13명 이사들이 모여 1차 이사회를 연데 이어 1차 이사회 임시의장 명의로 1월 26일 2차 이사회를 소집해 9명의 이사들이 차기 주지로 보경 스님을 선출했다"며 "2차 이사회 당시 법륜사 회의를 폐쇄한 전 주지 해일 스님과 추종 이사 4명이 성원 미달의 유령이사회를 열고 재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원은 스님은 "해일 스님이 또 다른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책임이 합법임을 주장하지만 이사회 구성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라"고 강한 어조로 호소했다. 또한 대원은 스님은 "별빈으로 이사 자격이 없다"는 해일 스님의 주장에 대해 "영우 스님은 호법원에서 '별빈 원천무효' 판결을 받았고, 운산 스님은 서울중앙지법서 징계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원은 스님은 "1월 19일 총 14명 중 13명 이사들이 모여 1차 이사회를 연데 이어 1차 이사회 임시의장 명의로 1월 26일 2차 이사회를 소집해 9명의 이사들이 차기 주지로 보경 스님을 선출했다"며 "2차 이사회 당시 법륜사 회의를 폐쇄한 전 주지 해일 스님과 추종 이사 4명이 성원 미달의 유령이사회를 열고 재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일 스님은 "1월 19일과 2월 23일 두 번의 이사회에 법륜사 신도회 회장과 신도들이 참석해 화합적인 회의를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중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

송함을 금지 못한다"며 "법륜사는 종단 접수에 대한 예비수단이라는 말이 이미 나돌았고, 그동안 별빈된 사람 등 불순 세력들이 음모를 시작해 너무도 염려되고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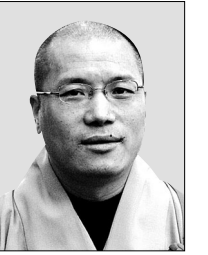
이번 내용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단 상황에 정통한 한 스님은 "법륜사는 태고종 총무원 중심부에 위치한 종단의 상징적인 사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공할"이라며 "종단 분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산 스님을 추종하는 현 집행부와 그에 반대하는 운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양 세력간의 축적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대륜문화 측은 "현재 법륜사는 신임 주지가 사찰 소임들까지 임명한 상태로, 3월 중순경 종정 스님을 모시고 새 주지 취임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지 쟁탈전을 두고 갈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3월 2일 당선 확정

제주 관음사 주지에 허운 스님(사진)이 무투표 당선됐다. 허운 스님은 3월 2일 열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차기 주지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다. 산중총회 개최와 함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관음사 산중총회는 2015년 10월 선거 당시 후보자 자격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지됐다. 지난 2월 산중총회 절차가 재개됐으며 허운 스님이 단독후보로 나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관음사 신임 주지후보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주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포교총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수강료 1년 60만원 (1학기 30만원)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一鵬三藏大學

願諸佛神力

統願香海禪三定

實相寺禪詩碑

祈國清象雲集文

一鵬徐宗保詩書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